박경 '음원 사재기' 폭로로 가요계 술렁…본격 공론화 되나

1주일만에 10억 꿀꺽…실체 없는 '검은손 유혹'

〈톱10 유지〉

가요계 공공연한 비밀 된 사재기
구체적 물증 없어 밝히는데 한계
"시장 교란…강력한 법제화 필요"
유통 시스템 전반적 개혁 요구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일까.

의혹만 무성하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음원 사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원 사재기는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이슈이지만, 최근 그룹 블락비의 멤버 박경이 동료 가수 6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나도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고 밝힌 글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가요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음악산업 관련 단체들도 음원 사재기 의혹에 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가요계 안팎에서는 현재 상황을 계기로 음원 사재기의 실태를 파악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의혹에 의혹만…

사실 그동안 음원 사재기는 가요계 내부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했다. 소문만 무성했다. 하지만 그 실태가 제대로 밝혀진 적은 한번도 없었다.

2013년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등이 '사재기 브로커'를 디지털 음원 사용 횟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브로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가수 이승환도 2015년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브로커가 순위를 올려주겠다며 억대의 금액을 요구했다"고 말하며 음원 사재기 시도 의혹을 폭로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사재기는 말 그대로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듣기)을 부당하게 이용(구입)해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정 노래를 매크로 프로그램 등 비정상인 방법으로 스트리밍하면 그 횟수만큼 음원 차트에서 순위가 올라간다. 음원 사이트의 차트 1~10위에 오른 곡은 좀처럼 순위 변화가 없어 같은 순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 이 같은 수법이 유혹의 손길을 뻗을 위험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또 이전에는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가수들이 차트 순위 상승을 통해 한번에 유명세를 얻으면서 관련 의혹에 휩싸이기도 한다. 지난해 봄 무명가수 닐로가 그 몇 달 전 발표한 음원으로 갑자기 차트 역주행해 장기간 1위를 차지하면서 사재기 의혹의 시선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의혹 해소 등 대책 방안은?

닐로는 "순위에 오른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의혹을 풀어 달라"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냈지만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사재기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이처럼 지금까지 음원 사재기가 적발된 적도 없지만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도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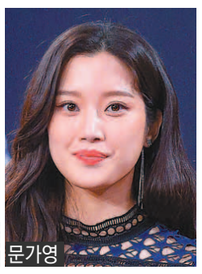
김작가 대중음악평론가는 27일 "음원 사재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다는 말은 많지만,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실체가 드러난 적이 없다"면서 "건전한 음악시장을 교란시키는 심각한 행위라 이를 파악해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의혹만으로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규 대중음악평론가는 "순위가 오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다면 가수들끼리 싸우자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대중의 신뢰를 모두 잃게 된다"며 "관련 부처에서 사재기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건전한 음악 유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4


우도환


문가영

우도환·문가영 "열애설? 친구사이"

연기자 우도환과 문가영이 또 다시 열애설에 휘말리자 "친한 친구 사이"라며 부인했다. 27일 두 사람의 데이트 목격담이 나오면서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연인 사이가 아니라 워낙 친해 격의 없이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MBC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에 함께 출연해 친분을 쌓았다. 드라마 종영 후 한 차례 열애설이 제기됐지만, 당시 소속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연기자 현우와 표예진은 연애 1년 만에 결별했다.

유산슬 '합정역 5번 출구' 뮤비 공개


유산슬

트로트 가수 유산슬(유재석)의 인기곡 '합정역 5번 출구'와 '사랑의 재개발' 뮤직비디오가 27일 공개됐다.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자신이 '유산슬'의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아낸 유재석은 이 프로그램의 연출자 김태호 PD의 SNS를 통해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 유재석은 이날 김 PD의 유튜브 라이브에도 출연해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소감 등을 밝혔다.

박경림, 12월1일 '이리이리 바자회'


박경림

방송인 박경림이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바자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4년째 세이브더칠드런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그는 12월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2층 크레아 오픈라운지에서 '2019 이리이리 바자회'를 연다. 바자회 수익금은 모두 농어촌 아동의 영양 지원 사업에 쓰인다. 이날 세이브더칠드런의 또 다른 홍보대사 안정환·이혜원 부부, 가수 하춘화 등도 애장품 등을 경매에 내놓는다.

BTS '짝퉁 굿즈' 인천공항서 적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캐릭터 상품을 베껴 만든 이른바 '짝퉁'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반입된 가짜 BTS 캐릭터 상품 1만5000점을 적발,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TS의 등록상표인 'BT21'을 모방해 만든 가짜 상품에는 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류와 모자, 가방, 필기도구 등이 대거 포함됐다.

'하자있는 인간들' 안재현 "루머들 명백한 사실무근"

구혜선과 이혼소송 중 첫 공식석상
"드라마에 피해 가지 않도록 할 것"

"개인사로 불편함을 느꼈을 시청자들과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

연기자 안재현(32)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아내 구혜선(35)과 이혼 소송 도중 MBC '하자있는 인간들'의 주연으로 나서며 밝힌 심경이다.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사옥에서 드라마 제작발표회가 열린 가운데 안재현이 파경 소식 이후 첫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재현은 2016년 5월 연기자 구혜선과 결혼한 뒤 3년여 만인 올해 9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구혜선은 SNS로 파경 위기를 밝히며 안재현의 외도 의혹 등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다. 안재현은 "난무하는 루머는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드라마 촬영에 집중해온 안재현은 이날 "이 자리마저 내가 해를 끼치는 게 아닐까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아있다"며 그동안 자신을 배려해 준 제작진과 동료 연기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이에 연출자 오진석 PD는 "제목에 딱 맞는, 기가 막힌 캐스팅"이라며 안재현의 연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함께 출연한 구원은 행사 도중 땀을 흘리는 안재현을 위해 휴지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오연서는 "안재현이 땀이 많다. 보는 사람들이 혹시 눈물로 오해할 것 같다"는 너스레로 무거운 분위기를 바꿨다.

이날 밤 첫 방송한 '하자있는 인간들'은 '꽃미남' 혐오증이 있는 여자(오연서)와 외모집착증을 지닌 남자(안재현)가 자신들을 둘러싼 편견을 깨고 사랑에 빠지는 로맨스를 담았다. 안재현은 이날 깨고 싶은 편견을 묻는 질문에 "착하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라며 "차가운 외모와 달리 속마음은 따뜻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작품에 폐를 끼칠까 조마조마하다." 연기자 구혜선과 이혼 소송 중인 안재현이 27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손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82년생 김지영' 공감의 힘…아시아 전역 확대

베트남·홍콩·대만 등 개봉 '호평'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아시아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결혼해 아이 낳고 살아가는 여성의 평범함이 지닌 소중한 삶의 가치가 국경을 넘는다.

정유미·공유 주연 '82년생 김지영'(감독 김도영·제작 봄바람영화사)이 10월23일 개봉해 상영 한 달을 넘긴 26일 현재 박스오피스 4위(누적 364만1869명)를 지키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힘입어 아시아 국가에서도 차례로 작품을 공개하며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

37개국에 판매된 '82년생 김지영'은 이달 1일 베트남을 시작으로 7일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에 이어 14일 싱가포르, 20일 인도네시아, 22일 대만에서 차례로 개봉했다. 같은 시기 '터미네이터:다크 페이트', '조커', '겨울왕국2'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과 맞붙어 쉽지 않은 대결을 벌이면서도 제 몫을 해내고 있다.

특히 대만 관객의 반응이 눈에 띈다.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82년생 김지영'은 22일부터 24일까지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영화의 원작 소설이 중국과 일본, 대만 등 17개국에서 출간돼 인기를 얻은 힘, 대만에서 크게 흥행한 '부산행'의 두 주역 공유와 정유미가 참여한 영화라는 기대가 맞물린 결과다.

베트남에서도 '좀비랜드' 등과 경쟁해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6위로 출발했고, 홍콩에서도 '조커' '아담스 패밀리' 등과 맞붙은 가운데 박스오피스 7위로 시작했다. 월등한 순위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의 정서가 녹아든, 여성의 삶을 잔잔하게 그린 이야기로는 고무적인 성과다.

국내에서 한창 상영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각국에서 동시 개봉하는 사실도 의미를 더한다.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향후 일본과 필리핀, 태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개봉한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구하라 생전의 마지막 모습 못본다

日 후지TV tune 통편집 가능성
"방송 여부는 제작진과 협의해야"

가수 구하라(28)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공개되지 못할 전망이다.

생전 구하라가 녹화에 참여해 30일 방송하는 일본 후지TV 음악정보프로그램 'tune' 측이 "내용의 일부분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구하라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앞서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한 출연자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을 제외해 출연 장면을 편집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니지먼트사인 프로덕션 오기에 따르면 구하라는 또 이미 다수 방송프로그램의 녹화를 앞두고 있었다. 관계자는 "녹화를 마친 프로그램도 있어 방송 여부에 대해 제작진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팬들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열심히 활동하려 노력한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더욱 가슴 아파하고 있다. 실제로 구하라는 올해 6월 프로덕션 오기와 손잡고 활발히 활동했다.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만큼 의욕을 드러내며 가요제, 패션쇼, 화보촬영, 방송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특히 19일 막을 내린 현지 4개 도시 투어에서 "솔로로 도쿄돔 공연을 하고 싶다"는 포부로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구하라

22일 일본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구하라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인이 신변을 비관하며 남긴 자필 메모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은 없어 단순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고인은 27일 경기도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